

동지가 금속노조다!

# 대전충북지부

23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1년 4월 19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 2021임단투 승리!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 2021년 투쟁 본격 시작!

지부가 2021년 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4/22(목) 2021년 투쟁승리를 위한 지부 전진대회를 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개최한다. 바로 다음주 4/29(목)에는 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투쟁선 포 기자회견을 연다.

지부는 올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와 임단투 승리를 하나로 모으는 투쟁을 전개한다. 지부 내 23개 지회 중 9개 지회가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최근 많은 조직 확대가 이뤄졌지만, 복수노조 사업장도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업장 상황을 반영한 투쟁이 필요해졌다.

**4/22(목) 13:00 지부 전진대회\_기자회견**

(민주당 대전시당)

**4/29(목) 11:30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기자회견**

(민주당 충북도당)

### 21년 임단투 승리! 창구단일화 폐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를 앞세운 자본의 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업장 조차도 간부들은 크고 작은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임단투는 구조조정을 뛰어넘어 임금과 노동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지부 중심으로 지역적 단결과 연대를 이뤄내야 한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벌써 10년째 시행 중이다. 이미 수많은 사례에서 그 폐해가 드러났다. 최근의 대양판지 사례는 아주 대표적이고, 악질적인 사례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투쟁이 절실하다. 지부는 올해 임단투와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투쟁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투쟁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